

HOME & GARDEN
LIFESTYLE MAGAZINE
JANUARY 2018 VOL.227

전원속의 내집

ALL ABOUT HOMES

세계적인 건축가와 나눈 집에 대한 고찰



www.uuj.co.kr

ISSN 1228-5131 ₩ 9,800

01



9 771228 513009

집은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예술



세계가 첨단화·물질화될수록 개별적이고 고유한 것이 가치를 얻는 역설 속에서 건축은 그것이 놓이는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자연과 교감해야 한다. 스위스 건축가 다비드 머쿨로(Davide Macullo)를 만나 그의 작업에서 구현한 자연주의적 방식에 대해 듣고, 변화하는 환경 속 건축가의 역할에 대해 물었다.

스위스 건축가

DAVIDE
MACULLO

PROFILE

스위스 조르니코(Giornico) 지역에서 태어나 루가노(Lugano)에서 살며 일하는 그는 스위스와 미국 버클리의 학교에서 미술과 건축, 인테리어 디자인을 전공했다. 20년(1990 ~ 2010) 동안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제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으며, 유명 건축가 마리오 보타(Mario Botta)의 프로젝트 아키텍트로 경력을 쌓았다. 국내에서는 리움미술관과 왓종미술관 설계에 참여했고, 최근 서울 강남 WAP ART SPACE를 설계하는 등 우리나라와의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한국에서 리움과 왓종미술관 등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번에는 어떤 일로
오게 되었나?

25년 전 처음 왔을 때부터 한국과 사랑에 빠졌다. 그 이후로 한 해도 빠지지 않고 한국에 방문했다. 이번에는 12월 8일에 열린 제주국제건축포럼의 ‘공존도시- 도시를 공존으로 디자인하다’라는 주제 세미나에 초대되어 왔다. 작년에 제주도 건축가들이 스위스 루가노에 있는 내 사무실을 방문해 인연이 닿았다. 마침 올해 강남에 준공한 갤러리 방문 일정도 있었다.

이번 제주도 강연의 주제는 ‘스위스 티치노
지방의 자연과 건축’이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하다.

주변 자연환경이 사람의 생활과 습관, 일하는 방식과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러한 영향은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는 지역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 사람들의 인식처 역할을 하는 것이 건축이기 때문에, 우리는 디자인할 때 첫 번째로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려 한다. 그다음으로 사회학, 심리학, 시간, 콘텍스트, 상징 등도 고려하는데, 건물의 아름다움은

특히 자연과 문화적 맥락 안에서 관계 맺는 방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건축가가 자신의 에고(ego)나 이상(ideal)을 표현하기 위해 디자인하지만 우리는 인간을 디자인의 중심에 둔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공간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건축에 대해 어떤 인상을 받았나?
가장 기억에 남는 건물은 무엇인가?

개인적으로 역사에 관심이 많아 한국의 역사와 언어에 대해 조금씩 공부하고 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이 추천했던 곳이 창덕궁 비원이었다. 이전까지는 일본과 한국이 건축적으로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비원의 자연적인 요소와 건축의 어울림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일본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이 있었다.

국내에서는 당신을 ‘자연주의 건축가’라고
칭한다. ‘자연주의 건축가’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는가?

세계가 변화하고 기술이 발전할수록 생활은 편리해진다. 그러나 이 발전은 속도가

빨라지거나 몸을 덜 움직여도 되는 종류의 편리함 외에, 사람이 어떠한 공간 또는 자연 속에서 보는 것, 앉는 것, 경험하는 것에 대한 진보도 동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생활 속에서 자연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연과 공간이 서로 녹아들게 하는 것이 건축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공간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가까운 예로 제주도에선 예전부터 사적인 공간과 공적인 공간 사이의 경계(정낭)를 모호한 공간을 통해 건축에 잘 이용해왔다고 한다. 이러한 경계는 공간적 의미로 굉장히 발전된 개념이다. 사람들의 생활과 태도에도 자연스레 영향을 준다.

건축에 대한 자연주의적 태도는 건축의
지역성을 살리는 것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장을 조금 보태자면, 나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구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한다. 사람이 어떤 공간에 살면서 자신만의 길(route)을 발견하는 것은 곧 정체성(identity)을 찾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이를 확장해보면

기술이 발전하고
도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간이 비슷해지고
물질화되는 것은
건축적 퇴보이다.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유일한 자신만의 여정을 개척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길이 모여 세상이 발전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고 도구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지역이나 주변 환경과 관계없이 비슷하고 물질적인 공간이 생겨나고 있다. 그것이 한 사람에게는 길을 잃는 것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자면 퇴보하는 것일 수도 있다. 주변 환경과 관계를 맺고, 개성을 더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건축가가 도와주어야 한다. 지역성을 살려 사려 깊게 디자인한 건축물은 사람들의 정체성과 자연스럽게 결부되어 삶의 발전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

그 예가 있다면 무엇일까?
요즘 이스라엘에 병원을 짓고 있는데, 사람을 치료하는 곳이라 생각하고 설계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아픈 사람들을 위한 집을 짓는다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토속 정원이나 지역 식물을 통해서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고 싶었다. 이를 위해 각각의 식물 사진을 찍고 타일로 만들어 일부 공간의 마감재로 썼다. 병원 이용자들이 내 고향, 내 집에 온 듯한 기분이 들도록 만들었다.



1 - 스위스 알프스 해발 1,100m에 위치한 로사(Rossa) 칼란카 계곡에 위치한 집은 주변 건물들과 크기를 맞추기 위해 볼륨을 조절하고, 이 지역의 색상을 반영해 입면에 적용했다. SWISS HOUSE XXXII 프로젝트

2 - 줄무늬 요소를 모티프로 작업하는 현대예술가를 위한 공간으로 그의 조형적인 특성과 주변 환경을 조화롭게 구성하는 것이 숙제였다.



3 - 측창을 통해 설산의 정상이 또렷하게 보인다. 집 안에서 무엇을 보고 경험하는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의 생각이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SWISS HOUSE XXII 프로젝트

4 - 충분한 거주 공간을 원한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 만들어진 세 개의 볼륨이 프레온조(Preonzo) 마을의 박공지붕과 규모 등 현지의 맥락을 존중하면서 현대적 형태로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냈다.



이전의 작업을 살펴보면 노출콘크리트
마감의 비중이 높다.

콘크리트를 많이 쓰는 이유는 우리가 가장 흔히 접하는 현대적인 개념의 돌이면서, 클라이언트가 가장 원하는 재료이기 때문이다. 재료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신성하고 편안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화려하고, 있어 보이기 위해 노출콘크리트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 역시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의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다.

최근 완공한 SWISS HOUSE XXXII 는
어떤 프로젝트였나?

이 주택은 스트라이프를 통해 작품을 만드는 프랑스의 유명 아티스트 다니엘 뷔랑(Daniel Buren)의 집이다. 보통 어떤 아티스트의 집을 디자인한다고 하면 건축가가 집을 짓고, 아티스트가 나중에 자신의 작품을 집에 덧붙이는데, 이 프로젝트는 아티스트가 먼저 조각처럼 집을 디자인하고 나는 건축가로서의 역할을 서포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래서 이 집에 있는 요소가 하나만 떨어져 나가도 예술품으로서의 가치가 달라진다.

집인 동시에 예술품이라니 구현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다.

현대미술은 정형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갑자기 탄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집 자체가 마을에서는 컨템퍼러리 아트이자 조각이기도 하다. 동시에 박공지붕에 정해진 위치에 창문이 있는 집을 아이들은 보편적인 집의 형태로 떠올리는데 그 형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아주 작은 변화로 새로움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집의 형태는 무엇일까 고민한 결과가 바로 이 집의 외관이다.

이 집의 자연주의적 요소는 무엇인가?

이 집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절감 시스템으로 지어졌고, 자재도 대부분 지역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했다. 입면 하단의 녹색은 이 지역의 그린 랜드스케이프의 연장선이고, 상부의 마젠타 색상은 이 지역 여름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의 아주 특별한 순간을 포착한 것이다. 사람들이 평소에 볼 때는 이 색상을 하늘색이라고 인지하지 못하다가 이 지역의 특별한 순간에 하늘색이 되는 것을 보고

마치 동화(fairy tale) 같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적용해봤다.

다소 이질적인 느낌도 드는데, 주변과의
조화는 어떤 식으로 꾀했나?

위에서 건물을 내려다보면 십자 모양의 배치인데, 큰 덩어리는 마을의 중심 도로를 따라 늘어선 건물들의 사이즈와 맞추고, 4개로 소분되는 작은 부분은 이 마을에 있는 다른 작은 집들과 비슷한 크기로 보이도록 입체적으로 표현했다.

많은 이들이 건축가는 어떤 집에 사는지
궁금해한다. 당신은 어떤 유형의 집에 살고
있는가?

근무하는 오피스에 딸린 방에서 주로 머물고 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속담 중에 ‘유명한 구두 장인은 허름한 구두를 신는다’는 말이 있다. 아파트가 따로 있지만, 사무소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고, 교통 체증도 싫어해서 주로 사무실 가까이에서 생활한다.

집을 설계할 때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반대로 조금은 느슨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주변 맥락과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는 것이다. 한 사람한테는 그저 잠깐 살다가는 물리적인 공간일 수 있지만 얼마나 오래 지속되느냐에 따라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집이 남겨지게 될 것을 생각하면 주변과의 관계에 따라 집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해야 한다.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가구다. 클라이언트는 무슨 가구를 어떻게 놓아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며 평면 계획에 민감한 편인데, 사실 가구는 무드나 취향의 변화에 따라 나중에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다.

집을 설계하는 과정이 궁금하다. 그 공간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어떤 것을 느끼는지 신경을 많이 쓴다. 정신적으로 어떤 감정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탐구한다. 건축가가 디자인한 것을 클라이언트가 완벽히 이해하고 동의하도록 설명하는 것은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남은 부분을 클라이언트가 살면서 지속적으로 느끼도록 하는 것이 건축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건축가는 주변 환경과 맥락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손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며 설계해야 한다.

집을 어떻게 정의하나? 멀리서 봤을 때 집은 하나의 형상에 불과할 수 있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여러 의미를 갖는다. 그 안에는 엄청난 무언가가 있다. 앞서 말한 콘텍스트나 자연도 중요하지만, 집은 거주자에게 성(城)일 수도 있고, 온전한 세계일 수 있다. 건축가는 이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클라이언트와의 소통 방법이 궁금하다. 클라이언트와 의견을 주고받을 때, 가급적 3D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듣기를 원한다. 그 안에서 집이 가지게 될 중요한 장점을 찾고자 한다. 집을 포함해 공간에는 여러 가지 위계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조합되고 이어져야 하는지 생활하게 될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에

대해 듣지 않으면 디자인할 수 없다. 미적인 부분은 가치관과 트렌드에 따라 언젠가는 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정신적인 지향점이 나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 어떤 생활 방식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통하길 원하고 답을 기다린다.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도 다양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작업실을 겸하는 집이나 듀플렉스 주택, 협소주택 등이 크게 늘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앞으로 ‘집’이라는 공간은 어떻게 진화할 것으로 예상하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3D 프린터 등을 통해 만든 똑같은 모양의 집도 많이 생기는 한편, 갈수록 사람의 나이나 성향에 따라 새롭고 다양하게 요구하는 집도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어 런던 도심에 살던 사람들이 40대 이상

이 될수록 외곽으로 빠지고 있는데, 자신의 성향과 개성이 더욱 잘 반영된 나만의 공간을 원하기 때문인 것 같다.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건축가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건축가는 이 세상에 더 필요한 직업이 될 것이다. 편리한 건 기술로 해결할 수 있고 가격도 맞출 수 있겠지만, 개인의 마음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공간은 건축가와의 소통을 통해서만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제주도의 대문이 단순히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을 나누는 경계가 아닌 주인과 손님 간에 예의와 온기를 나누는 요소인 것처럼 생활과 문화, 자연과 공간이 어우러진 자기만의 장소는 기술만으로는 설계할 수 없다. ■

5 - 한국 건축가 한만원과 공동으로 작업한 왈종 미술관은 제주도에 위치한 이왈종 화백이 살던 집을 헐고 만든 곳으로 낮은 언덕 위 흰 도자기 모양이 인상적이다.

6 - 붉은 벽돌에 줄눈을 손으로 직접 마감한 외관은 거칠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을 자아낸다.

